

2022 OPEN! V.

보이는 상황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떠나 할 영적인 눈

1. 영적인 눈

[에베소서 1: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경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말한다. 눈의 기능은 무엇인가? 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보는 눈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두 종류의 눈이 있다. 육체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라 말할 수 있겠다.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보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당연히 보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향한 싸움이다. 성경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둡다는 것이다. 어두운 상태는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흑암이다. 어둡기 때문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죄의 상태가 흑암의 상태이다. 있어도 볼 수 없다. 존재해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보이는 것에 반응한다. 보이는 상황이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절망한다.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18절을 보니 육신의 눈이 아닌 어려움의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밝혀달라 말하고 있다.

* **맹인견** - 맹인견을 알 것이다. 맹인견의 역할은 무엇인가? 맹인견은 집에서 키우는 보통의 개와 다르다. 맹인견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맹인견은 앞을 못 보는 주인의 눈과 같다. 맹인견의 훈련은 주인의 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볼 수 없는 상황을 봄으로 주인을 돕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이다. 예수님의 눈이 되어야 한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2.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급

[창세기 21:14-21]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오늘 본문은 하갈의 이야기이다. 하갈의 삶을 보라. 한 여인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삶을 산다.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버림받고, 사라의 핍박을 받는다. 더 나아가 자신의 전부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버림을 받았다. 오늘 하갈의 처지를 보라.

ㄱ) **14절** -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어 브엘세바 광야로 보낸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살 수 없는 곳이다. 죽어가는 곳이다. 하갈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양식은 떡과 물 한 가죽부대 뿐이다.

ㄴ) **15절** -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물이다. 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 직전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갈의 처지를 보라.

ㄷ) **16절** - 하갈의 절박한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16절이다. 물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 품에 있던 아이는 죽어가고 있다. 어머니의 심정이다.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다.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죽어가는 아이를 마주보며 소리 내어 통곡할 뿐이다. 하갈의 통곡의 울음을 상상해 보라. 절박함을 넘어서 절규에 가까운 울음이다.

ㄹ) 17절 -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절망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해 약속하신다.

ㄱ) 18절 -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의 씨).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 구절 19절이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떠서 보게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샘물’을 보게 하셨다. 샘물은 무엇인가? 광야에서 샘물은 생명이다. 그리고 하갈은 물을 채워다 이스마엘의 갈증을 해결하신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하갈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갈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공급’인 샘물을 보게 하셨다. 하갈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공급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공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자. 나를 압도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내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자. 샘물의 공급을 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3. 내 눈을 열어 주소서 - ‘눈의 전쟁’

[열왕기하 6:14-18] 14 왕은 곧 그 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15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6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17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 말과 불 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18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1) 눈을 열어주소서

아람 왕(시리아)과의 전쟁이다. 시리아 사람에게 엘리사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다. 엘리사가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먼저 안다는 것은 아무 작전도, 전략도 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리아 왕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아야 했다. 말씀을 보니,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포위한다(14절).

엘리사의 시종이 밖으로 나가 포위된 상황을 본다. 시종은 보이는 상황에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이다. 그때 엘리사의 말을 보라 (15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엘리사가 본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포위한 시리아의 기병을 본 것이 아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다 (16절).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한다. "저 시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바로 그때 시종의 눈이 열렸다. 그리고 불 말과 불 수레가 가득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보았다. 놀라운 장면이다. 포위당한 엘리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는 눈이 열렸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떠나 할 눈은 어떤 눈인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본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엘리사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눈을 열어 주시고, 공동의 눈을 열어주소서. 더 나아가 고통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2) 눈을 멀게 하소서

반대로 엘리사는 자신을 포위하고 있던 시리아 군대의 눈을 멀게 하였다. 눈이 먼 그들을 이끌고 약 20km를 행진하여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한 후, 모두 포로로 잡아들였다. 엘리사를 죽이러 왔다가 눈이 멀어 한 번에 포로가 되어버린 시리아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와 함께 ‘눈을 닫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인간의 교만과 탐욕의 눈을 닫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오늘 성도들에게 ‘눈’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어떤 눈이 열려야 하고, 어떤 눈이 닫혀야 하겠는가? 기도하자. 압도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는 분이시다. 확신 가운데 거하자.

주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보게 하소서. 아멘.